

지역 매 아리

고창 명품 고춧가루 1.8톤 4000만원 상당 일본에 수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명품고추(대표 이균영)가 2019년산 고춧가루를 일본으로 첫 수출을 시작한다.

고창명품고추연구회는 21일 오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연구회 소속 농가 등이 참여해 수출 기념식을 열고 해외시장 공략을 축하했다.

이번 고춧가루 수출 물량은 1.8톤(약 4000만원)이며, 일본 내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수입업체인 ㈜영명은 "고창 명품 고춧가루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서 생산되고 미세달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되어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창명품고추연구회 이균영 대표는 "명품 고창고추는 사진 기계 세척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적으로 생산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창 고춧가루를 생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일본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책이있는풍경' 가을 인문학콘서트 화제

고창군의 한 개인 문학관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과 예술공연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고창군 신태면 입전마을 안에 있는 '책이있는풍경'에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이있는풍경'은 원래 사립기업이자 문학평론가인 박영진씨의 개인 서재이자 쉼터로 만들어졌다.

수만권의 책으로 한국문학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꾸며졌고, 이후 황토방, 시인의 방, 작가의 방, 철학이 있는 방, 북카페 등이 들어서며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서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개관 이듬해인 2013년부터 가을이 되면 북콘서트도 연다. '책이있는풍경'의 매력에 빠진 작가와 가수, 성악가, 연주자 등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이 다녀갔으며, 박영진 총장은 어머니와 함께 매년 손님들의 식사를 손수 준비해 대접하고 있다.

올해도 통기타 가수 송민수와 강촌사람들의 공연, 육근삼 시인의 시 낭송, 류지남 시인과 김홍경 소설가와의 만남, 성악, 클래식 연주, 문학평론가의 인문학 강연 등이 알차게 진행됐다.

'책이있는풍경' 박영진 총장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의 미래... 사람이 중요"

권익현 군수, 주요업무보고회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천명했다.

권 군수는 21일 열린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인구문제는 지자체의 존립여부가 걸린 시대적 과제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양한 시책을 내놓으면서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안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만큼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인구에 초점을 맞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군수는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함께 최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

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도 필수적인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오는 25일부터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부안가을갯국화빛 축제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며 "능동적인 축제 홍보와 함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기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진진 기자



고창경찰서가 21일 오전 4층 대강당에서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전 위해 최선을"

고창서, 경찰의 날 행사 성료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21일 오전 4층 대강당에서 경찰서장과 경찰서 전 직원 및 협력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행사는 창경 74년을 기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치안, 세계와 함께하는 치안한류'를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시청,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추사 낭독, 경찰가 제창, 축하케이크 커팅 및 다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책임을 다하며 치안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찰관들과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해 온 협력단체의 활동사항을 전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김시중 경사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총 42명의 직원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경찰행

정발전이 유공이 있는 박종대 보안지원협의회 부위원장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는 등 28명의 민간인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각자 소임을 다하는 모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결속을 위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며·정의롭고·정감 넘치며·정진하는 고창경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 개최

최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제4회 2019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자원봉사와 함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잇다!'란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14개 시·군 청소년봉사단과 학생, 시민, 관광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6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와 4개 청년봉사단 동아리가 운영한 홍보·체험프로그램 버스 등을 운영했다. 또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

는 볼거리와 가을철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 거리로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생애 주기 중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청소년들의 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중앙도서관이 지난 9월 미래창작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창작소에서 지성·감성 꿈틀

정읍 시립중앙도서관, 3D 체험·코딩·과학 강연·시인 초청 등 진행

정읍 시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지성과 감성을 더해주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미래창작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개소 이후 미래창작소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진행해 책 속 주제와 연계한 코딩 활동과 더불어 종이·구리·클레이를 활용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시민에게 3D 체험과 다양한 창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앙도서관에서는 평일 오전과 오후에 성인 대상 3D 모델링과 프린팅 기초과정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 대상 총 10회의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1차와 2차 각 5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6일에는 '10월의

하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10월의 하늘'은 과학자·과학 교수·과학 저자들이 전국 도서관을 찾아 무료 강연을 펼치는 행사이다.

강사진은 우리 시 도서관을 찾아 첨단과학기술 MRI, CT, 방사선 등 과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료기기 안전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우리 지역 출신 시인 오은과 함께 가을의 정서를 느끼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지성과 감성을 더하고 창의적 사고를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곁에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작소 공간은 많은 시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과수 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가져

정읍농업기술센터는 21일 2019년 과수 분야 시범사업 추진 농가와 관심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신기술보급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 신기술 보급 성과와 확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 앞서 작품의 기분이 되는 특강도 병행했다.

과수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관수와 배수, 물리성·화학적 개량, 시비 개선과 양질의 퇴비를 이용한 시비 관리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이날 평가회는 8개 사업 17억9천만 원의 과수 분야 시범사업에 대해 요인별 성과분석이 이뤄졌다.

주요 기술로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충밀도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교미교란제와 페로몬 트랩을 활용해 해충밀도를 저감시켰다. 또 이상 기

상에 따른 저온과 서리 등 기상 악조건에 대응한 수분 불량 개선 인공수분기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과율을 10% 향상시켰다.

복숭아와 태추단감 작목은 다목적 지주를 이용해 유목기 수세 관리와 과목 보호 효과를 높였고 단감 선별기를 지원함으로써 수작업 선별에 따른 불균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을 개선했다. 또한, 사과 착색기 다공질 반사필름 사용으로 반사 필름 설치에 따른 햇빛 데임 개선 효과를 거뒀다.

시범사업평가회는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고 보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참여 농가들의 사례발표와 정보교환 등 사업발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상과 병해충에 의한 품질 저하에 대응해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A large banner image showing a council meeting in progress with many members seated around a large table.